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한글 성명: 시훈진.

시 간 을 건 너 운 나 눔
한 국 은 카 페 의 나 라 라 고 해 도 과 연 이
정 도 로 카 페 가 널 리 고 널 린 것 은 작
년 에 한 국 에 생 환 하 면 서 알 게 되 있 다 .
은 하 수 의 별 들 속 에 가 장 빛 나 는 별
하 나 찾 기 가 쉽 지 않 겠 지 만 서 울 의 카
페 들 가 문 데 ^관장 내 마 음 을 사 로 잡 은 곳 이
어 디 2) 주 저 없 이 안 려 쥔 수 있 다 .
중 로 주 의 어 느 조 응 한 거 리 로 들 어 가
모 통 이 를 돌 아 자 그 막 한 커피 잔 이 그 려
진 간 판 이 보 인 다 . 숨 겨 진 보 물 답 게 가
게 는 지 하 의 위 지 한 다 . 이 카 페 는 빈 터
지 가 구 와 각 양 각 색 한 고 물 로 꾸 며 놓 은
것 ^을 자 랑 한 다 , 이 공 간 으 로 들 어 서 자 마 자
타 임 머 신 을 탄 기 분 이 든 다 . 그 래 서 이
공 도 19 xx 년 이 들 어 간 듯 하 다 .
카 페 는 여 러 공 간 으 로 나 누 어 져 있 고
공 간 마 다 다 른 콘 셉 으 로 장 식 돼 있 지 만
어 느 한 곳 은 매 력 적 이 지 않 을 데 가
없 다 , 그 래 서 구 석 구 석 을 탐 색 하 는 재 미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 한글백일장

소속교: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한글 성명: 시효진

조 나 는 매 번 다 른 자 리 에 앉 곤 했 다.
 내 최 매 자 리 를 만 나 기 전 까 지 . 그 곳 은
 바 로 부 스 처 럼 생 긴 작 은 구 석 방 인 제 ↳ 그 만은
 가 족 싱 글 소 파 와 감 짝 한 테 이 블 이 전
 부 났 다 . 벽 에 곤 여 행 배 낭 이 걸 려 있 어
 마 치 나 더 러 배 낭 을 메 고 19 00 년 대 로
 떠 나 라 는 것 처 럼 는 껴 진 다 . 이 렇 게 나 단
 외 이 지 표 가 생 기 고 나 니 책 을 가 저 가
 거 기 서 따 뜻 한 커피 한 잔 과 같 이 즐 기
 는 것 이 그 때 내 일 상 속 의 오 아 시 스
 였 다 . 어 느 새 ^한 근 사 한 공 간 을 공 구 해 주 는
 카 페 사 장 님 에 대 해 긍 금 해 졌 다 .
 약 세 번 재 방 문 했 을 때 다 . "혹 시 저
 번 에 책 을 빌 리 다 가 신 분 이 세 요 ?" 다 정
 한 목 소 리 로 한 말 이 들 려 온 다 . 주 문 한
 때 말 을 결 어 온 그 녀 는 매 번 친 절 하 게
 대 해 주 시 고 주 문 한 커피 에 초 콜릿 하 나
 더 ^신 트 레 이 에 담 아 직 접 자 리 로 가 저 다
 주 ^신 분 이 다 . 그 많 은 공 간 으 로 나 누 어 진
 매 장 이 서 나 를 찾 을 수 있 다 니 . 나 중 에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 한글백일장

소속교: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한글 성명: 시준진

알고 보니 사장님이 아니라 ^{유일하게} 사장님과
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. 그 래 도 나 에 게 는
사장님과 다름 없다. 그 후 로 또 몇 번 그 카페 를 방문 했
는 데 그 분 은 나 를 내 시 간 을 편 히 보
낼 수 있 게 두 고 주 문 할 때 만. ^반 몇 마
디 이야기 를 나누 었 다. 그 러 다 어느 날,
그 분이 어 리 를 문 작 에 살짝 내 밀 고 나
를 보 고 있 는 것 을 알 아 쳤 다. "죄 송 한 데
저 희 는 8 시 가 지 영 업 을 해 서 ... " 라 고
말 했 다. 나 야 말 로 죄 송 하 죠. 그 것 도 보 르
고. 그 래 세 응 답 을 하 고 급 히 소 지 품 을
챙 기 고 일 어 났 다. 카운터 를 지나 고 나 가
려 던 참 이 그 분이 불 켜 문 발 을 걸 으 며
나 타 났 다. 손 이 한 갈 색 종 이 봉 지 를 쥔
~~코~~ ~~있~~ ~~든~~ 채. 그 리 고 "잠 시 만 요." 를
미 어 내 겠 그 봉 지 를 건넸 다. "사 과 예
요." "지 상 으 로 몰 라 오 는 계 단 을 하나 하나 [✓] 밟
으 면 서 마음 이 벅 찼 다. 뜨 거운 무 언 가

2022년

제 2 회

세 계

성균 한글백일장

소속교: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한글 성명: 신종진

가	슴	을		가	득	쳤	다	.	밖	으	로		나	와		뒤	돌	아		
보	니		가	게		문	앞	의		판	자	를		이	미		영	영	중	
료	로		바	뀌	놓	았	다	.	용	시	를		지	났	다	.	나	는		
마	지	막		손	님	이	다	.	남	에	게	서		사	과	를		받	은	
게		처	음	이	다	.	그	분	이		나	에	게		사	과	할		만	
한		일	을		한		게		없	는	데		고	마	음		일	만	을	
골	라	했	다	.																
	그	날		밤	은		내	가		집	으	로		가	면	서		손	에	
사	과	가		들	어	있	는		종	이	봉	지	를		거	머	뒤	고		
어	머	니	가		떠	오	른	다	.	예	전	에		나	는		대	화		
때	문	에		그	분	의		따	님	이		대	만	에	서		공	복	하	
고		있	다	는		것	을		알	고		있	었	다	.	나	를		보	
고		자	신	의		딸		생	각	을		하	셨	는	지	.	가	게	를	
들	어	갈		때		한	낫	인	데		나	를		때		네	이	비	석	
하	를	이	다	.		그	곳	은		나	에	게		선	사	해	주	는	것	
은		19	00	년	대	의		시	간	조	각	,		그	날	의		대	여	섯
시	간	의		여	유	와		편	안	함	과		매	력	적	이		면	서	도
아	는	한		공	간	이	다	.		그	리	고		무	엇	보	다	는	그	
분	의		따	뜻	한		마	음	을		내	겐		나	누	었	다	.	머	
떠	한		물	질	적	인		것	보	다		마	음	을		움	직	일		

2022년 제 2 회 세 계 성균 한글 백 일 장

소속교: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한글 성명: 신원진

[illegible]